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공사를 멈추게 하고,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계셈, 그리고 대적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유대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했다면 이제는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느헤미야를 지켜 주셔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충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 첫째,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로 사명을 바라보라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벽이 빈틈없이 다 세워지고, 성문의 문짝만 달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산발랏과 계셈은 느헤미야를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회유합니다. 4절에 보면 네 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끈질기게 유혹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나는 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 일은 멈출 수 없는 큰 일이다.”라고 대답하며 대적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맡기신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단지 문짝을 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일이라고 고백하며 사명의 자리를 지킨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 둘째, 진실함과 기도로 사명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으라

본문 5~7절에 보면, 산발랏이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소문이 퍼지기를 계획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 대한 이런 나쁜 소문을 들었다. ‘유다 사람들과 모반을 일으켜 내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상모략, 거짓 소문을 통해 느헤미야를 넘어지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8~9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것은 거짓이다. 내가 지어낸 말이라고 분명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짓을 이길 힘이 진실과 기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지켜 주셔서 12년간 유다 총독이 되게 하십니다. 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헛된 소문으로부터 지켜 주신 것입니다.

### 셋째, 말씀을 따라 죄의 자리가 아닌 자신을 자리를 지켜라

마지막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죄에 빠지게 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 스마야를 통해 대적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성소 안에 머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스마야도 뇌물을 받고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은 죄를 짓게 하고,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11절에 보면, 그가 자신은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했더니, 이것이 자신을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주의 종의 말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도 스마야처럼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믿음이 자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충성하여 사명을 완수해 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암송

### 이번 주 외울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사도행전 20:24)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통독

### 이번 주 성경 통독

| 12/6(월)      | 12/7(화) | 12/8(수) | 12/9(목)   | 12/10(금) | 12/11(토)     | 12/12(주일) |
|--------------|---------|---------|-----------|----------|--------------|-----------|
| 고전15-16, 고후1 | 고 후 2-5 | 고 후 6-9 | 고 후 10-13 | 갈1-4     | 갈 5-6, 엡 1-2 | 엡 3-6, 빌1 |

## QT

### 이번 주 QT 말씀

| 12/6(월)  | 12/7(화)    | 12/8(수)  | 12/9(목)   | 12/10(금)  | 12/11(토)   | 12/12(주일) |
|----------|------------|----------|-----------|-----------|------------|-----------|
| 딤후 3:1-9 | 딤후 3:10-17 | 딤후 4:1-8 | 딤후 4:9-22 | 욥 32:1-10 | 욥 32:11-22 | 욥 33:1-13 |

## 나눔

###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누어 주세요.
3. 주님이 맡겨 주신 일을 감당하며 어려움과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한 경험을 나누어주세요.